50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경추 제3-4, 4-5, 5-6, 6-7번간 추간판탈출증

 성별
 나이
 44세
 직종
 자동차 제조업
 업무관련성
 높음

1 개 요

근로자 이○○은 1988년 3월 ○○자동차(주)에 입사하여 스프레이 작업을 시행하던 중 2007년 12월 중순경 목,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고 2008년 1월 경추 3-4, 4-5, 5-6, 6-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.

2 작업내용 및 환경

근로자 이○○은 1988년 3월 ○○자동차(주)○○공장 버스 도장부에 입사하여 스프레이 작업을 시행하던 중 버스사업부 이전에 따라 199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승용도장부로 전환 배치되어 작업 중이다. 주야 2교대이며 1일 평균 9시간 40분의 정규 근무 및 한 달 평균 24번, 1회에 보통 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. 버스 도장부에서의 작업은 현재 ○○공장에는 없는 관계로 동료들의 대역으로 작업평가를 실시하였다. 버스 도장작업은 버스 천정작업, 상도도장작업, 스틸바디 도어 내부 작업, 테일게이트 내부 도장 작업등이 있으며 각 공정에서 목 부위 신전과 비틀림 등이 관찰되었다. 승용 도장부 작업은 센딩 작업, 수정부스작업, 스프레이 작업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작업 시 허리의 과도한 굴전과 비틀림, 목 부위의 신전과 비틀림이 관찰된다. RULA로 작업 자세를 분석 결과 버스도장 작업에서 목부분의 평가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작업량이 3인1조, 일 3대정도로 많은 편이었다. 반면 승용도장부의 작업은 목

부분의 평가점수는 일부작업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았으며 해당 작업이 연속적으로 길지는 않았다(작업시간은 평균 30대/hr, 1대/45sec정도)..

3 의학적 소견

근로자 이〇〇은 이전 다른 직업은 없었고 과거력과 질병력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다. 20대초부터 하루 반갑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주 1-2회,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다. 2007년 12월 중순경 목, 어깨 통증이 시작되어물리치료를 받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, 2008년 1월경 또다시 목, 어깨에통증이 있어 2008년 1월 14일 MRI촬영결과 경추 3-4, 4-5, 5-6, 6-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2008년 2월 11일부터 2008년 4월 23일까지 51일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호전 없이 통증만 심화되었고 현재까지 상기 병명으로 보존적치료를 받고 있다.

4 결 론

근로자 이ㅇㅇ은

- ① 경추 제 3-4, 4-5, 5-6, 6-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후 의뢰되었는데,
- ② 발병 전후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이 있는 특이사항이 없으며,
- ③ 1988년부터 1996년 9월까지 했던 버스도장부에서의 작업이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목부위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,
- ④ 현재 작업 중인 승용도장부의 평가에서 일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 있으나 해당 작업의 노출시간이 연속적으로 길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,
- ⑤ 근로자 이〇〇의 과거의 작업내용에서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보 다 빠르게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,

근로자 이〇〇의 위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.

106 ▮ 산업안전보건연구원